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도로명에 지역 역사 담아

### 교량·지하차도·교차로 30곳... 순우리말 지명 활용 세계 반도체산업 선도하는 용인의 문화·역사 새겨

경기도 용인특례시가 차인구 원삼면 일대에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도로시설물에 지역의 역사, 문화, 지명 등을 반영하는 지명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7일 용인시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약 600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차인구 원삼면에 수백년 동안 이어져 온 마을의 이름과 지역 설화 등 지역의 문화유산을 도로시설물명에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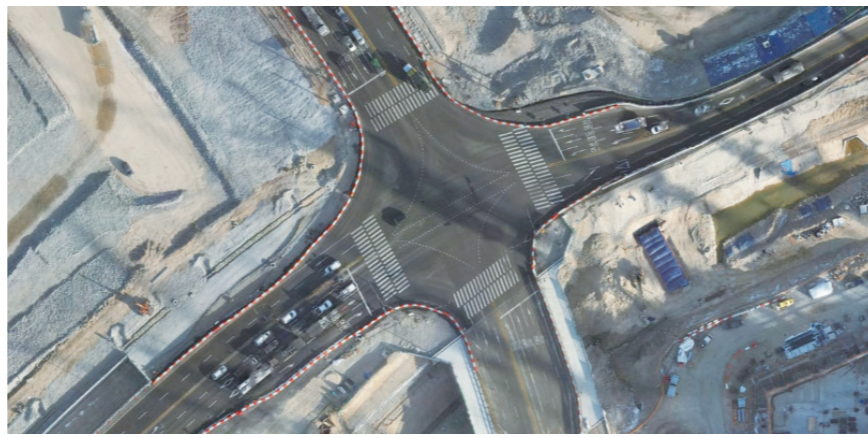
시는 지난해 23일부터 25일까지 '제2회 용인시 지명위원회'를 열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주변과 단지 안에 조성 중인 도로시설물의 지명 제정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지명 제정 절차 대상 도로시설물은 △교량 9곳 △지하차도 1곳 △교차로 20곳 등 총 30곳이다. 상정한 지명 상당수는 고문헌과 지역 향토자료에서 발굴한 순우리말 지명이다.

시는 이번 지명 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세계 반도체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용인특례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았고 시민들이 용인에 대한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명 선정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도 이뤄졌다. 시는 올해 1월 원삼면 이장단을 대상으로 의뢰수렴 회



용인특례시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도로시설물에 지역 유래 명칭 부여에 나섰다. 용인특례시 제공.

의를 열었고 '순우리말거리' '중터사거리' '독촌사거리' 등 현지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을 반영했다.

'순우리'는 원삼면 고당리에 있는 마을의 명칭으로 순채가 자라는 연못을 표현하는 '순당'을 순우리말로 표현한 것이다.

'중터'는 원삼면 독성리의 마을 이름이며 '독촌'은 독성리의 옛 이름이다.

이와 함께 시가 도로시설물 지명 제정 안 중 하나인 '야광주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주출입로 신설계획에 따라 문촌리와 야광마을, 죽느리 도로

연결을 위해 신설한 교량이다. '야광주'는 조선시대 당시 무학대사가 천도지상을 탐색 중 이 지역이 야광주가 문헌 형상이라고 평가한 것에서 유래했다.

이상일 시장은 "야광주교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품은 보석처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세계 첨단산업의 빛을 밝히는 관문이 될 것이라는 염원을 담아 제정했다"며 "이번 지명 제정은 세계 반도체산업을 선도하는 용인특례시의 미래와 원삼면 주민들이 지켜온 역사와 이야기를 함께 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심을 통과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도로시설물 지명은 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 절차를 통과하면 올해 하반기에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용인=조철희 기자 cch@skyedaily.com



시생성 이미지

## 경기도, 공공데이터 우수 선정 5개 영역 18개 지표 종합 평가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68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공공데이터 제공 분야와 데이터기반행정 분야 모두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실태점검은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품질, 데이터 분석·활용, 기관 간 공유, 관리체계 등 5개 영역 18개 지표를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공공데이터 제공 분야와 데이터기반행정 분야 모두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데이터 값 관리, 진단결과 조치,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추진 기반 조성 등 8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이 밖에도 고수요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AI 혁신 행정 추진단 운영,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및 위원회 출범 등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2021년 이후 공공데이터 제공 분야 실태점검에서 4회, 데이터기반행정 분야에서는 5년 연속 우수기관을 유지하고 있다.

박원열 AI데이터행정과장은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조철희 기자 cch@skyedaily.com



지난해 'AI로 JOB자:2025 수원시 일자리박람회'가 수원컨벤션센터 전시홀에서 열렸다. 수원특례시 제공.

## 수원시, 2026 일자리박람회 열린다

### 9일 수원컨벤션센터서 50개 기업 참여 직업계고 학생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 수원특례시가 9일 수원컨벤션센터 전시홀에서 '2026 수원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7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이날 일자리박람회에는 50개 기업이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현장 면접을 하고 3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일자리를 찾는 수원 시민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기업이 구직자와 면접하는 채용관, 15개

일자리 관련기관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정보관을 운영한다.

특화산업(첨단제조·복합) 중심의 산업별 채용관, 취업배려계층(경력보유여성·장애인 등) 맞춤형 채용관에서 현장 면접을 한다.

부대행사로 △인공지능(AI) 기업매칭 △AI 모의 면접 △뷰티 AI분석 △면접 메이크업 컨설팅 △이력서 사진촬영 △취업

타로 등을 운영한다.

오후 3시에는 수원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반도체 분야 현직자가 '성공적인 취업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사전 행사로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일대일 실전면접 클리닉(28개 부스),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특강, 멘토링 프로

그램 '아주 나이스한 만남'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특화산업 중심의 일자리 매칭으로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채용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라며 "사전 행사인 직업계고 학생 대상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실전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조철희 기자 cch@skyedaily.com

## 오산시, 2027~2028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본격 준비

### 교통·안전·의료·숙박 전 분야 아우르는 7개 팀 운영 정기 보고회·시뮬레이션 병행... 단계별 추진상황 점검

경기도 오산시가 '2027~2028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 체계 구축에 나섰다. 대회 전반을 아우르는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오산시에 따르면 3일 해당 대회의 성공 개최를 목표로 '대회 추진기획단'을

구성했다.

이번 추진기획단은 오산시를 중심으로 오산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시공사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로 행사기획을 비롯해 교통, 안전, 의료, 의식, 숙박, 홍보, 문화행사, 도시정비 등 대회 전 분야를 총괄한다.

조직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7개 팀으로

구성돼 분야별 역할을 분담하고 전문성을 높였다.

특히 추진기획단은 정기적인 보고회를 통해 단계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제 대회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병행해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내 시군 선수단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수 중심의 경기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 관리 체계 강화에도 집중한다.

또 친환경 운영 기준을 반영한 대회 준



오산시가 2027~2028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오산시 제공.

비와 함께 도시 전반의 수용 태세를 정비해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경기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모범적인 스포츠 축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다.

이권재 시장은 "추진기획단 구성을 통해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며 "1400만 경기도민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조철희 기자 cch@skyedaily.com

##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체험 꾸러미 제공

경기도 남양주시가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4월부터 6월까지 남양주시 및 구리지역 초등학교 약 1720명을 대상으로 '2026 지역 특화 슬기로운 체험학습' 비대면 농업체험 꾸러미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내 농촌체험농장, 초등학교가 협력해 진행한다. 초등학교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정서적 발달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 운영한다. 관내 10개 체험농장에서 자체 개발한 총 21종의 농업체험 꾸러미와 동영상 자료를 제공한다.

학생들이 농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교과과정과 연계된 농촌체험과 환경교육을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양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학교 연계 체험형 농업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농업을 이해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다양한 농업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내 체험농가를 홍보하고 농촌체험을 통한 지역 미래인재 육성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백동기 기자 dkbail@skyedaily.com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가 학교로 찾아가는 농업체험을 확대 운영한다. 초등학생들이 화분 만들기를 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 광명문화재단 "봄이 흐르는 한내천에서 만나요"

### 10·11일 이틀간 '2026 한내천 봄꽃축제' 개최 풍성한 볼거리와 포토존·피크닉 존 등 마련

경기도 광명시 한내천에서 봄의 설렘과 여유가 흐르는 축제가 열린다.

광명문화재단이 10·11일 이틀간 한내천과 소하 상습지구 일대에서 '2026 한내천 봄꽃축제'를 개최한다.

한내천 봄꽃축제는 매년 봄꽃과 개나리가 만개하는 시기에 맞춰 열리는 광명의 대표적인 봄 축제다. 특히 인근 상습지구와 협업으로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해 왔다.

올해 축제는 '봄'이라는 주제를 더욱 선명하게 살렸다.

광명시민정원사 협동조합이 참여해 화사한 봄꽃 테마 포토존을 꾸미고 시민들이 직접 꽃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화훼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축제는 낮부터 밤까지 다채로운 매력으로 채워진다.

따스한 햇살 아래 여유를 즐기는 '소풍 공간(피크닉 존)'과 아기자기한 공예품, 꽃과 화분을 만나는 '벼룩시장(플리마켓)'이 상시 운영된다.

해가 저무는 저녁 시간에는 감미로운 버스킹 공연과 낭만적인 '포차거리'가 어우러져, 맛있는 음식과 함께 봄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축제는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화훼 체험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신청받는다.

자세한 행사 프로그램과 일정은 광명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광명문화재단 지역문화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송은영 대표이사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가족·이웃·친구와 함께 한내천의 흐드러진 봄꽃 사이를 거닐며



광명문화재단이 한내천과 소하 상습지구 일대에서 '2026 한내천 봄꽃축제'를 개최한다. 광명시 제공.

여유를 만끽하길 바란다"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계절 축제를 시민 누구나 누리도록 열린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명=백동기 기자 dkbail@skyedaily.com

## 인천시, 14일 인천대공원 어린이동물원 재개방

### 총 31종 125두의 동물 사육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가 구제역 예방을 위해 휴원 중이던 인천대공원어린이동물원을 14일부터 재개방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2월 인천 강화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확산 가능성이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동물원을 긴급 임시휴원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31일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 종료되는 등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재개방을 결정하게 됐다.

재개방과 함께 어린이 대상으로 운영되던 어린이 동물교실도 내달 1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어린이 동물교실은 동물의 습성과 생태를 설명하는 체험활동으로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2회, 오후 3회 등 하루 총 5회 운영한다. 참가를 원하는 방문객은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인천대공원 어린이동물원은 사막여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가 구제역 예방을 위해 휴원 중이던 어린이동물원을 14일 재개방한다. 인천광역시 제공.

우, 미어켓, 일본원숭이, 다람쥐원숭이, 꽃사슴, 독수리, 수리부엉이 등 총 31종 125두의 동물을 사육하고 있다. 동물원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휴원은 매주 월요일과 설날, 추석 당일이다.

임상균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다가 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2회, 오후 3회 등 하루 총 5회 운영한다. 참가를 원하는 방문객은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인천=백동기 기자 dkbail@skyedaily.com